

미래의 저술과 출판

金敏洙

고려대 교수 · 國語學

요즘 편지를 보면, 전보다 印刷物이 훨씬 많아졌다. 인쇄물이라고 해도 타자기나 워드프로세서로 찍은 것, 쓰거나 찍어서 복사한 것이 정말로 인쇄한 것보다 의외로 많다. 이것은 전통타자가 발달하고, 문서작성기라고 불러야 할 워드프로세서와 복사기가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편지를 뜯어보면서 볼펜으로 썼어도 肉筆이 정답고, 타자라도 직접 찍은 것은 괜찮게 느껴진다. 반면에, 복사한 것은 인쇄물과 함께 공문과 같은 인상이지만, 써서 복사한 것은 몹시 언짢게 느껴진다.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연이라도 그 형식에 이렇고 저런 감상을 느끼게 마련이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은 그러한 느낌에도 혼란을 주고 있다. 우선 최근에 보급되기 시작한 팩시밀리로 급한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그 프린트를 들고 불쾌하다고 하기 어렵고, 더구나 기계의 발달로 전통 타자기나 문서작성기로 직접 찍은 것과 그 프린트를 다시 복사한 것은 육안으로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그런 복사물이라도 직접 적었거나 하고 속아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느낌의 혼란이다.

2차대전 이전만 해도 예절을 갖추려면 반드시 붓으로 써야 했는데, 그 이후에는 펜으로 써도 非禮라고 타하지 않았다. 20년 전부터인가 만년필로 쓰는 것도 드물고 볼펜으로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었으니, 세태의 변화는 今昔之感이 적지 않다. 오늘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에, 앞으로의 변화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편지는 전화가 보급한 만큼 팩스로 바뀌겠지만, 문자생활은 누구나 값싸고 간편한 電算機로 대신할 것이 확실하다. 예상이라기보다는 수십년 앞으로 다가올 현실이다.

이러한 21세기를 바라본다면, 세태의 그 변화는 아주 가시적이다. 글쓰기가 그토록 기계화되었을 때, 모든 문서가 입력해서 산출됨에 따라 편지나 원고를 쓴다는 것은 즉 전산기에 그것을 입력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원고지에 집필해서 출판사에 넘긴다는 것은 물론 옛이야기가 되고, 전산기 디스켓을 원고 대신 넘기는 것도 그 端末機로 출판사에 보내는 것도 구차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면, 저술은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인쇄로 직송되어도 되고, 종당에 자유로운 개인출판이 융성할 것이다.

이것은 데이터통신의 측면을 생각지 않고 글쓰기의 세태를 전망한 양상이다. 이미 실용화되고 있는 데이터통신이 더욱 발전하면, 도서의 수요는 이것으로 대신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 통신은 데이터단말기를 가지고 접속된 통신회로를 통하여 무한한 정보를 전송받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개인의 장서나 도서관의 구실을 이 장치가 다한다고 예상할 때에, 그때의 출판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겠는가? 작거나 저자가 쓴 작품은 이 세상 독자에게 어떤 형태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전달될 것인가?

그 시기가 오면, 지금도 팩스에 호감을 가지듯이 어떠한 프린트에도 거부감을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손으로 쓴 편지를 보면 희귀한 구시대 유물이라도 발견한 듯 정답기보다 화제로 등장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1세기 앞을 점치지만, 5세기나 10세기가 지났다고 가상해 보자. 손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지금 殷나라의 甲骨文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인간이 言語를 가지고 생활할 것은 명백하다. 머리를 써서, 글을 쓰고 발표하는 것은 변할래야 변치 못할 것이다.

- | | |
|------------|--|
| 토픽 2 | 토픽으로 보는 1990년의 출판·출판계
공공도서관업무 문화부 기관에서 도서상품권 허용까지 |
| 5 | 출판기자단 선정 '올해의 책' |
| 세미나 6 | 도서관정책과 도서관문화의 발전—이경구 |
| 7 | 변천하는 사회와 도서관문화의 재조명—이두영 |
| 서평 8 | 이만열 「단체 신채호의 역사학연구」—신용하
강재언 「조선의 서학사」—조광 |
| 9 | 평화연구소 「북한교육의 조영」—박완선
주봉규 「토지정책」—오진모 |
| 10 | 정대현 「지식이란 무엇인가」—이봉재
카프라 외 「녹색정치」—김상중 |
| 11 | 브랙만 「니네베 발굴기」—최몽룡
임우기 「살림의 문화」—김태현 |
| 12 | 이동하 「혼돈 속의 항해」—윤지관
김용성 「큰 새는 나뭇가지…」—김중희 |
| 13 | 채훈 「재만한국문학연구」—오양호
유순하 「병어리 누에」—신현철 |
| 확대서평 14 | 사회주의 변혁을 보는 한국적 준거틀—임영일
학술단체협의회 위임 「사회주의개혁과 한반도」 |
| 저자인터뷰 15 | '길'을 통해 본 영남지역 문화사
「영남대로」 펴낸 최영준 교수 |
| 리포트 16 | 복사기기 발달과 저작권 침해 현황—이두영 |
| 뉴스 17 | 일산출판단지 사업협동조합 창립총회 |
| 현장르포 18 | 금속활자 고향서 보는 우리 인쇄사의 내력
청주 흥덕사지 고인쇄박물관을 찾아 |
| 이 책 그사람 19 | 「우울씨의 일일」 펴낸 함민복씨
「우리꽃 백가지」 펴낸 김태정씨 |
| 20 | 「세일즈엔지니어링」 펴낸 김상욱씨
「괜찮다 괜찮다…」 낸 천상병 시인 |
| 자료 22 | 문예진흥원 창작지원도서 100종 |
| 화제의 책 23 | 출판연구소 펴낸 「한글글자꼴 기초연구」 |
| 세계의 출판 24 | 후세인 독재정치의 본질 밝힌 연구서·외 |
| 독자서평 26 | 정경아/이은숙/손이숙/허운선 |
| 28 | 새로나온 시집 |
| 29 | 어린이책 들춰보기 |
| 30 | 신간안내 |
| 38 | 200자 안내/화제의 책/이색출판 |
| 40 | 신간목록 |
| 47 |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
| 48 | 프리즘/독서퀴즈/정기구독안내 |